



믿음과 의심 사이를 걷다

마태복음 14:28-31 / 남현수 목사(Pastor Joshua Hyunsoo Nam)

● 들어가기

- 인생은 Hot Iced Americano 같습니다.
뜨거움과 차가움,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.
- 오늘 본문 속 베드로처럼, 우리도 믿음과 의심 사이를 걷습니다.

● 묵상하기

1. 풍랑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

-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“유령이다!” 하고 외쳤습니다.
- 그러나 주님은 “나다. 두려워하지 말라.” 하셨습니다.
- 상황은 그대로지만, 주님이 () 하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

2. 믿음과 의심이 섞인 베드로

- 베드로는 “주여, 정말로 주님이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”라 했습니다.
- 베드로의 고백은 ()과 ()이 섞여 있었습니다.
- 그러나 주님은 “오너라” 하시며 불완전한 믿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.

3. 붙드시는 주님의 손

-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“주여, 살려 주십시오”라 부르짖었습니다.
-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.
- 진짜 믿음은 내가 아니라 ()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.

● 적용하기

1. 나는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있습니까?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?

2. 내 믿음이 아슬아슬해도, 오늘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?

3. 내가 주님을 꼭 붙드는 것 같지만, 사실은 이미 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?